

식약처, 추석 맞아 자매도시 제천시에 ‘성과보상금’ 환원…따뜻한 상생·나눔 실천

- 식약처 우수기관 포상금 500만원, 제천시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 제천시장과 함께 전통시장 찾아 명절식품 안전관리 점검 및 소상공인 격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명절을 앞둔 9월 14일 지역상생 자매결연 도시인 충북 제천시를 방문하여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격려하는 등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추석을 맞아 자매도시와 유대를 강화하고, 고물가 등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날 제천시청에 전달된 불우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은 식약처가 ‘2025년도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 전액으로 마련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는 식약처 직원들이 국민 안심을 위해 노력해 온 성과를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으로 환원한 것이다.

이어 김용재 차장은 이상천 제천시장과 함께 명절을 맞아 제천내토시장을 방문하여 직접 장을 보면서 현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에게 신선한 식재료를 제공하고 먹거리 안전에 노력하는 상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격려했다.

김용재 차장은 “직원들의 노력으로 얻은 우수한 성과를 자매도시인 제천시의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제천시와 맺은 상생 정신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매년 명절마다 지역 사회와의 따뜻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웃과 소통하고 지역 동반 성장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라 밝혔다.

담당 부서	운영지원과	책임자	과 장	정현철 (043-719-1221)
		담당자	연구관	김천수 (043-719-1251)

